



24일 한화와의 경기를 앞두고 KIA 선수들이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비를 맞으면 훈련을 하고 있다. 이 경기는 우천 선언됐다. /연합뉴스

KIA '1위 사수'-NC '2위 탈환' 주말 빅매치...2위 두산만 '함박웃음'

'동병상련'의 두 팀이 주말 마산 구장에서 물러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KIA 타이거즈는 23일 롯데 자이언츠에 5연패를 당한 뒤 쓸쓸하게 대전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양현종과 핵터틀 내고도 연패를 끊지 못한 KIA는 한화 이글스를 시작으로 NC 다이노스·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를 치른 뒤 안방으로 돌아온다. 이번 원정길에서 가장 눈길이 쏠리는 곳은 역시 마산 구장이다. 두산 베어스를 중간에 두고 전전공공하는 두 팀이 만나기 때문이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를 보내면서 1위 KIA와 3위 NC는 애가 탄다.

KIA-NC 후반기 부진 어쩔 이리 다했을까

KIA
12승1무14패...5할 승률 안돼
팀타율 0.279...평균 득점도 똑
2위 두산에 턱밑까지 추격당해

KIA는 57승 28패(승률 0.671)의 고공행진을 하면서 2위와 8경기 차 1위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NC는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KIA에 싹쓸이 3연패를 당했지만 48승 1무 35패(승률 0.578) 2위로 전환점을 돌았다. 3위 자리는 48승 1무 39패(승률

NC
최근 10경기 3승 7패 부진
나성범 10경기 타율 0.189
두산에 2위 내주고 격차 커져

0.552)의 두산의 몫이었다. 후반기 1위 자리를 놓고 전진하던 KIA와 NC는 후반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 배터리를 위협하던 타선이 주춤하면서 후반기 두 팀의 승률이 떨어졌다.

특히 KIA의 타격 하락세가 눈에 띈다. KIA는 전반기에 0.310의 팀타율로 경기당 평균 6.9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후반기 팀 타율은 0.279로 떨어졌고 평균 득점도 4.9점으로 내려왔다. 폭발력이 떨어진 타격과 함께 KIA는 선발, NC는 불펜이라는 전반기와 다른 마운드 고민을 하면서 패를 쌓아가고 있다. KIA는 후반기 27경기에서 12승 1무 14패(승률 0.462)에 그치면서 5할 승률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NC는 17승 15패로 0.531의 승률을 보이지만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를 수확하는 데 그쳤다. 그러는 사이 '디펜딩 챔피언' 두산의 뜨거운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2위 자리는 이미 차지했다. 23일 현재 3위 NC를 2.5게임 차로 밀어낸 두산은 1위 KIA에는 3.5

게임 차까지 따라붙었다. 전반기 마지막 날 10경기 차 밖에 있던 두산의 무서운 추격이다. KIA는 토타자로 총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던 이명기와 함께 타선에 뒷심을 더해줘야 하는 이범호·나지완의 부진 속에 답답한 8월을 보내고 있다. 마운드 운영의 엇박자도 뒷심 싸움의 약재가 되고 있다. NC도 스크럽스의 부진에 이어 나성범이 최근 10경기에서 0.189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역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마음과는 다른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KIA와 NC의 '빅매치', 두산은 1위 추격과 2위 굳히기라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눈궁하게 마산을 주시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테니스 황제' 페더러 메이저 첫 20승 도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테니스대회가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 킵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개막한다. 137회를 맞는 올해 US오픈에는 총상금 5040만 달러(약 570억원)가 걸려 있다. 남녀 단식 우승자에게 상금 370만 달러(41억8000만원)를 주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한 선수도 5만 달러(5600만원)를 가져가는 '머니 게임'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관심은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가 남자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0번째 우승을 달성할 수 있는지다. 페더러는 2012년 윌블던 이후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르지 못해 메이저 우승 횟수를 '17'에서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36세가 된 올해 호주오픈과 윌블던을 제패하며 남자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19까지 늘려냈다. /연합뉴스

정현, 윈스턴세일럼 8강행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49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윈스턴세일럼 오픈(총상금 66만4825달러) 8강에 올랐다. 정현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단식 3회전에서 켈리링 베네토(107위·프랑스)에게 기권승을 거뒀다. 1세트를 6-4로 따낸 정현은 2세트 게임스코어 1-1에서 베네토가 경기를 포기해 준중결승행을 확정했다. 정현의 다음 상대는 다미르 줘머(67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정해졌다. 정현은 올해 3월 줘머와 한 차례 만나 1-2(6-3 1-6 6-7(1-7))로 패한 바 있다. 8강에 오른 정현은 상금 1만 7270 달러(약 1900만원)와 랭킹 포인트 45점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양궁·태권도·펜싱 金...한국 중간순위 1위 달려

타이베이 하계U대회 5일째

한국이 제29회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에서 다섯째 종합순위 1위를 달렸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23일 효자 종목인 양궁과 태권도, 롤러, 펜싱에서 금메달을 7개 추기했다. 23일까지 금메달 1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7개를 획득한 한국은 일본(금 15개·은 11개·동 17개), 대만(금 12·은 13·동 6)을 따돌리고 메달 레이스 선두를 질주했다. 역도에서 5개, 수영 다이빙에서 2개 등 금메달 7개를 따낸 북한은 종합순위 5위에 자리했다. 한국 양궁은 컴파운드에서만 금메달 4개를 명중했다. 컴파운드 여자단체전에서 소채원, 송운수, 김윤희가 러시아를 232-229로 이겨 첫 금을 했다. 이어 김중호, 소채원이 혼성 결승에서 타카를 157-153으로 따돌리고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에서는 김중호가 타키의 엘마가 클리 데미르를 146-145, 1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물리쳐 2관왕에 올랐고, 여자부 결승에선 송운수가 대만 전이쉬안에게 146-143으로 승리했다. 롤러 흥승기(전북체육회·서남대)는 남자 500m에서 39초 936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한국 롤러는 이번 대회에서 3번째 금메



이겼다 지난 23일 대만 타이베이 텐우야구장에서 '제29회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한국대학야구대표팀이 대만의 A조 예선 최종전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달을 수확했다. 남자 격객들은 '금빛 찰리'에 성공했다. 구본길, 장태훈(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대전대), 김준호(국군체육부대)로 이뤄진 대표팀은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이란을 45-3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날 끝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 종목 사상 한국의 첫 금메달을 합작한 구본길, 오상욱, 김준호가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다. 태권도 여자 67kg급 김잔디(22·용인대)도 시상대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양궁은 24일에도 금빛 명중을 이어갔다. 김우진(정주시청), 이승윤, 이우석(이상 코오롱엑스텐보이즈)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은 리커브 단체 결승에서 개최국 대만을 세트 스코어 6-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열린 리커브 여자 단체 결승에서도 최미선(광주여대), 강채영(경희대), 이은경(순천시청)이 대만을 5-4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 결승전에서 한국은 4세트까지 대만과 4-4 동률을 이뤘으나 이어진 샷오프에서 세 선수 모두 10점 만점을 쏘며 10점 한 발과 9점 두 발을 쓴 대만을 따돌렸다. /연합뉴스

8회 퍼펙트→9회 노히트→10회 패전

LA 리치 힐, 피츠버그 해리슨에 끝내기 홈런 허용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좌완 선발투수 리치 힐(37)이 8이닝 동안 퍼펙트 피칭을 하고도 패전투수가 됐다. 힐은 24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벌인 2017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 0-0으로 맞선 연장 10회 말 선두타자 조시 해리슨에게 끝내기 좌월 솔로포를 맞고 패전했다. 시즌 5패(9승)째. 힐은 8회까지는 단 하나의 안타와 사구, 실책도 허용하지 않고 피츠버그 타선의 진투를 '퍼펙트'로 틀어막았다. 삼진을 10개나 잡아냈다. 하지만 9회말 선두타자 조디 머서를 3루수 실책으로 내보내면서 퍼펙트 행진은 깨졌다. 머서의 타구는 3루수 로건 포사이드의 글러브를 맞고 크게 튀었다. 포사이드가 공을 다시 잡는 사이 머서는 1루에 안착했다. 다음타자 크리스 스튜어트의 희생번트로 1사 2루가 됐지만, 힐은 침착하게 호세 오수나를 3루수 땅볼, 스타를링 마르테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 이닝을 끝냈다. 9이닝까지는 '노히트노런'이었다. 다저스 타선이 타지지 않는 바람에 경기는 연장으로 들어갔다. 이전까지 95개의 공을 던진 힐은 10회 말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힐은 해리슨을 상대로 초구에 헛스윙을 유도한 뒤 볼 2개를 던졌다. 그러나 4구째 시속 약 142km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당해 왼쪽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솔로포를 허용하고 말았다. 99개의 공으로 단 하나의 안타만 허용한 힐은 0-1 패배의 책임을 떠안고 패전했다. /연합뉴스



MLB닷컴에 따르면 노히트노런이 연장 끝내기 홈런으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이다. 또 퍼펙트 게임이 9회 이후 실책으로 무너진 것도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다. 9이닝 이상을 던지며 안타 1개 이하, 볼넷 0개를 기록하고도 패전한 투수는 힐이 1906년 레프티 라이필드(피츠버그) 이후 처음이다. 힐은 지난해 9월에도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7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내다가 손가락 물집 문제를 걱정했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판단으로 8회 이후에는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힐은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7회까지 퍼펙트를 하고도 8회에 교체된 선수로 남았다.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해리슨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리라 믿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다저스 담당 엔디 매컬러 기자는 힐이 경기 후 "내 책임이다. 그 하나의 나쁜 공 때문에"라며 자책했다고 트위터로 전했다. /연합뉴스